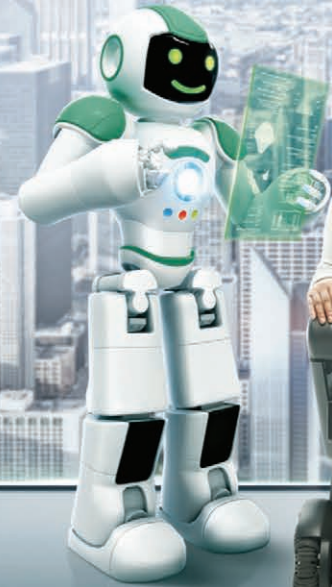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Nice to meet samyang



삼양,
내일은 어디서
만날까요?



삼양의 차별화된
약물 전달 기술의 첨단 신약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2023년 춘향제 초헌관, 이배용 위원장

天命과 中和의 실현을 꿈꾼

河西道學과文學

제호 글씨 朴秉濠

— 제38호 목차 —

인성교육과 서원(書院)	2
초헌관 이배용(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명(正名)의 정신	6
김기현(전북대 교수)	
하서 김인후의 경(敬) 사상	12
김기현(전북대 교수)	
하늘은 모든 존재의 바탕이다	14
이기동(성균관대 교수)	
선비의 삶	16
김용해(시인, 전 광주고등학교장)	
한국인, 서울대 꿈꾸지만 행복과는 관련 없다. 행복은 부-명예-학벌 아닌 '관계'에 있다.	19
필암서원 창건과 망암 변이중	
변온섭(사) 봉암서원 이사장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호남정치인들	27
박은식(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필암서원 산양회 소식	29
필암서원 산양회 활동사항	32

입회비는 3만 원, 연회비는 5만 원. (사)필암서원산양회 계좌(농협 351-1175-2599-63)

인성교육과 서원書院

초헌관 이배용(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1. 유교문화와 인성교육의 시대적 과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어왔다. 동방예의지국이란 인사 잘하고 예절 바른 것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도덕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받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도덕과 정신은 땅에 떨어지고 막말하고 무질서하고 서로를 헐뜯는 품격 잃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참다운 인재를 키워야함을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여겨야하는 학교에서부터 폭력이 난무하고 잔학한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할 수 있는 학교 교육에 대한 폭넓은 반성과 도덕 재무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 유교문화와 인성교육의 시대적 과제

극기복례克己復禮라고 다시금 철저히 자 기반성을 통해 인간 본연의 자세를 되찾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정직과 신뢰, 책임과 성실, 존중과 배려, 공동체적 질서와 화목, 품격과 예절은 예나 지금이나 지성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덕목이다.

요즈음 사회 각계에서 인문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세계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이룩해 온 물질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치관과 혼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과 대립, 생태적 문제 등을 겪으면서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행복한 삶 지수’ 등에서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하

락해 오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행복이 빵만으로는 얻을 수 없으며, 정신적인 부분도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3. 유교문화와 인성교육의 본질

“인성교육” 인간의 인간됨 교육

인간 ① 기계, 기술개발, ② 가치와 규범의 문화적 전라, ③ 스스로 윤리적 판단, ④ 가치판단 능력, ⑤ 선택의 결과와 행위에 대한 책임

- 문학_ 상상력과 미래세계
- 역사_ 풍부한 인간 삶의 모습
- 철학_ 윤리적 가치와 원리
-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 배움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 부여
- 보다 나은 인간 사회의 구성에 기여

1) 유교문화에서 지향한 인성교육의 가치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

첫째, 교육방법에서 수신을 통해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추구한다.

둘째, 교육 내용 면에서 문학, 역사, 철학, 예학, 정치,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여 균형 감각을 갖추어 인성과 지도

력을 함양하게 힘썼다.

셋째, 유교교육의 지향점은 자기 충실과 타인과의 조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의 지혜를 일깨워 주었다는 점이다.

경이직내敬以直內, 의이방외義以方外

안으로는 공경심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고 밖으로는 의로써 반듯한 행동을 하라는 선비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자연과 인간의 조화

오행五行(목·금·화·수·토)과 오성五性(인·의·예·지·신)

4. 인문학적 사유를 통해 확보되는 중요한 특징

- 내면성과 자기 성찰성

1) 사유 능력의 함양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냥 앉아 생각한다고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역사 안에서 생각의 여러 갈래 길들을 만들어 놓았다. 이러저러한 갈래들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지면 우리는 새로운 생각의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으며,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림으로써 더 많은 생각의 길을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의

사유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2) 분석 능력의 함양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소중히 가꿀 수 있는 균형 잡힌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러 가지의 생각의 갈래 길을 걸었던 사람은 그에 비추어 사물과 현상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눈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력과 비판적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비판은 무조건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안목 위에서 정밀한 사물의 객관적 분석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합리적 사고가 정립될 수 있다.

3) 상상력의 함양

인간의 도덕적 능력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태도이다. 역지사지의 능력은 인간관계 기술을 함양시키고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기의식적 반성을 가능하게 한다. 역지사지의 능력은 상상력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상상력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는 예술적 능력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소통능력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배움 능력의 함양

논어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

다. 배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스스로 묻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문명을 지금껏 견인해온 배경인 것이다. 이 근원적 호기심과 배우고자 하는 동기는 자기 자신 안에서 주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근원적인 내면성의 표현인 것이다.

5)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인문학적 사유는 단순히 자기 속에 침잠하여 묵상하는 사유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으로부터 동기를 부여 받아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 다양한 인간 삶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시시각각 마주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을 높일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인간 삶의 우연성에 대처할 수 있는 예지력을 키워줄 것이다.

5. 인성교육의 실천과 과제

첫째, 자기 자신 스스로 실력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고 당당한 전문인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실력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며 남들도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사리 판단을 할 때 신중하게 처신

하며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는 어느 순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균형과 조화의 지혜를 가지고 매사를 사려 깊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셋째, 누가 보나 안보나 한결같은 자세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과 행동을 하여야 한다. 옛날 선비들도 명도(明道)와 신독(愼獨)을 가장 제일로 꼽았다. 정의로운 도를 지키고 근신하며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도덕심에서는 정직이 제일인 것이다.

넷째, 높은 이상을 가지고 넓고 사려 깊은 지성으로 미래를 품고 세계를 품을 때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가는 시대적 안목을 키

워야 한다.

다섯째, 관용의 정신이다. 항상 밝은 미소로 따뜻한 가슴으로 배려하고 나누고 헌신할 줄 아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르고 함께 상생과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다. 자기가 소속한 기관, 나아가서는 국가에 자긍심을 가지고 아울러 주인 의식을 투철히 인식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배용 이화여자대학교 13대 총장, 국가브랜드위원회 2대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16대 원장

정명正名の 정신

김기현(전북대 교수)

한 사람이 사회생활상 갖는 수많은 이름, 즉 호칭들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존재를 담고 있다. 예컨대 사람들이 나를 교수, 아무개씨의 아버지·남편·동생이라고 부를 때, 나의 존재는 그러한 요소로 구성되면서 어떤 총체적인 모습을 얻게 된다. 어떤 사상가들은 이에 대해, 그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이름과 존재가 어찌 나에게 본래적인 것이 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축소하려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서 그러한 모든 이름을 벗겨낸 뒤에 남는 ‘본래적인 나’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말 길이 끊겨버린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지평에 나타나는 나의 삶은 그저 하나의 무의미한 ‘몸짓’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는 시에서 이름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노래한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그는 다만/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그는 나에게로 와서/꽃이 되었다.” 요컨대 이름은 사람들의 삶의 출발점이요, 더 나아가 사회

생활의 기반(基幹)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은 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름은 삶의 의미를 정립시켜주고, 삶의 의미는 행동의 법도를 지시해주며, 사람들의 행동법도는 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정치는 백성들의 삶을 바로잡아주는 방편이다.”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큰 이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이름의 이와 같은 존재 표상성에 기인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사람됨)가 이름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얻는 이름들은 일차적으로 그들의 존재에 대한 평가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생각은 일리가 있다. 예컨대 교수라는 이름은 소정의 자격 심사를 거쳐서, 또는 대통령이라는 이름은 선거 제도를 통한 국민적 합의 위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큰 이름을 갖는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에 대해 일단 자부심을 가져봄직도 하다. 하지만 이름이 정말 존재를 여실히 드러내주는가? 이름이 표상하는 존재와, 그 이름을 갖는

사람의 사실상의 존재됨은 항상 일치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가 갖는 큰 이름에 걸맞지 않는 소인배도 있기 때문이다. 서로를 주고받는 이름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름은 일차 존재에 대한 평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것을 주고받는 사람들 상호간에 약속되고 기대되는, 따라서 그것을 갖는 사람으로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를 담고 있다. 말하자면 내가 사회생활 상에서 갖는 각종의 이름들은 존재의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끊임없는 현재진행형이며, 권리가기보다는 의무에 가깝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존재됨은 처음 그에게 부여된 이름 속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가 그 이름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삶의 역정 속에서 부단히 달리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갖는 수많은 이름들 속에서 그 수많은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라 할만 하다.

공자는 말한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 사람들은 군·신·부·자로, 기타 사회적 존재로 여러 이름들을 갖고 살아가면서 그것들의 권한과 권

위만 누리려 해서는 안 되며, 그것들이 지시하는 바, 자신들의 의미와 의무와 과제를 항상 되새기면서 올바르게,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비의 정명사상이다. 이러한 과제수행의 노력을 게을리 하는, 또는 그 과제를 망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국 그 이름을 박탈당하고 말 것이다. 공자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말한다. “술잔이 술잔 같지 않다면 그것을 술잔이라 할 수 있겠는가[觚不觚 觚哉 觚哉].” 이에 따라 우리는 저 “술잔”에 수많은 이름들을 대입시켜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지식인이 지식인답지 않다면 그를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람답지 않다면 그를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등등으로 말이다.

맹자가 폭군을 두고 “독부獨夫”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을 학대한다면 그는 더 이상 임금이 아니라 일개의 필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의 혁명사상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신하가 임금을 내쫓고 죽이는” 일은 불충과 대역의 범죄일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에 의하면 민심民心에 이반된 학정의 통치자는 더 이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애당초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殷나라 탕湯임금과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혁명에 대해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것

이 가당한 일인가” 하고 묻는 제齊나라 임금에게 그가 행한 다음의 답변은 비수와도 같이 날카롭다. “나는 탕임금과 무왕이 필부 한 사람을 죽였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들이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저항권의 사상사적 뿌리를 우리의 전통 내부에서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정명사상은 국민들에게 권력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혁명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정명사상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갖가지 이름들의 의미와 과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다. 사회생활상 수많은 공公·사私의 인간관계 속에서 남들이 나에게 어떤 이름을 불러줄 때 그들이 그 이름 속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그러한 이름의 본래적 의미를 숙고하고 거기에 담긴 과제를 자각하며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름의 존재 완료성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누리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자기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달리 살펴보면 사람들이 수시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처음 어떤 이름을 얻으면서 가졌던, 아니 그 이전에 그 이름의 이상을 꿈꾸었던 순수한 마음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뜻은 퇴계가 사람들에게, 자기 삶의 “방향과 자리[向位]”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스스로 성찰할 것을 촉구하면서 쓴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스승으로서 나의 가르침에 올바르지 못한 점은 없는지, 학생으로서 나의 배움에, 한 고을의 사람으로서 나의 행동거지에, 가장家長으로서 제가齊家에 올바르지 못한 점은 없는지 자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선비가 “세상을 속여 이름을 흠치는 것[欺世盜名]”을 크게 부끄러워했던 것도 이러한 정명정신의 소산이었다. 일례로 조목趙穆[호號 월천月川(1524~1606)]은 76세의 나이에 그의 학생들에게 자신을 “선생”이라 하지 말고 “월천옹月川翁”이라 부르도록 당부하였는데, 그 이유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여운을 남긴다. “나는 평생 ‘세상을 속여 이름을 흠친’ 일이 많았다. 지금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름의 과제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은 일차로 개개인에게 위임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남들에게도 그들 자신의 이름이 갖는 의미와 과제를 숙고하고 실천하도록 조력하고 또 충고·비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름이란 처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불러줌으로써 비로소 생기는 것이기에, 거기에는 그들의 기대와 이에 따른 그 과제가 담겨 있는 만큼, 그것 역시 엄연히 서

로 주고받는 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만약 그 이름을 갖는 자가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그의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상호 연관된 그들의 삶에 직·간접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를테면 교수가 그의 연구와 교육의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름을 부여해주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만큼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름을 부여한 사람이 그 이름을 갖는 사람에게 이름에 내재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것, 즉 정명을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이며, 그 권리의 포기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정명의 정신은 현실사회를 넘어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자리에서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과거의 사람들이 이름과 과제 수행의 관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얻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케 해주면서, 기왕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줄 하나의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의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해본다. 명종 때 사림士林을 도륙했던 을사사화乙巳士禍의 장본인 윤원형尹元衡은 한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말년에 실각 당한 뒤 결국 죽기 전에 죄를 받아 거의 모든 관작을 삭탈 당하였다. 그러나 그가 을사년乙巳年에 얻은, ‘사직을 보위한 공신[衛社功臣]’의 이름(훈장)만은 그의 사후에까지 지워

지지 않았다. 명종의 뒤를 이은 선조 당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시대적 소명으로 알았던 율곡은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는 정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윤원형의 저거짓된 훈장을 떼어버릴 것을 강력하고도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윤원형이 얻은 그 이름은 ‘사직보위’의 과제수행 결과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사직을 혼란과 불행에 빠트린 소행으로 따지면 그에게 잘못 수여한 그 이름은 당연히 박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윤원형이 얻었던 모든 관직과 훈장은 과제 수행과는 무관하게 주어진 거짓된 이름들이며, 저 거짓을 그대로 두는 한 사람들로 하여금 정의를 신뢰하면서 바른 사회를 이루게 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당시 주위의 사람들로 부터 “과격하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주장을 굽히지 않은 율곡의 정명의 역사정신이었다. 그는 끈질기게도 무려 41차에 걸친 상소 끝에 드디어 임금의 재가를 받아내었다.

우리는 이러한 정명의 역사정신으로 오늘날 우리의 왜곡된 현대사를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광복 이후 일제 당시 친일분자들을 정리하기 위한 ‘반민특위反民特委’의 결성은 사실 정명정신의 발로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광복光復(빛의 회복)’의 이름은 일제의 철수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정의의 햇불을 밝혀 일제하의 반

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확립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민특위의 좌절은 미래사회의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친일분자들이 갑자기 애국자로 변신하여 ‘광복’의 과제 수행을 위장하면서 여전히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는 웃지 못할 일들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정신의 어둠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오히려 ‘이름’의 뒤죽박죽 속에서 선악과 정사正邪의 판단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과거에 일본군 장교 출신이 그렇게 오래도록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이나, 또는 작금 일부의 세력들이 과거사 바로잡기의 노력을 공공연히 비난하면서 사회의 정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이렇게 반민특위의 좌절 이후 조성되고 만연된 전사회적인 가치혼란에 편승한 못된 현상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선비가 강조했던 “예·의·염·치”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과, 율곡의 정명의 역사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갖는 의미와 과제의 수행 속에서만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것이라면, 인간관계의 총체적 장인 사회의 건강 여부를 우리는 그들의 정명 여부에서 판단해볼 수 있다. 건강한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각자 정명을 통해 서로들 간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세상이다. 『주역』은 이를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인 가정의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버

이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형은 형답고, 동생은 동생답고, 남편은 남편답고, 부인은 부인답게 행동할 때 집안의 도가 바로잡힌다. 집안을 바로 세워야 세상이 안정되리라[父父子子兄兄弟弟夫夫婦婦而家道正 正家而天下定矣].” 마찬가지로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각자 그들의 이름답게 행동하고 살아갈 때 그 조직은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사회도 역시 그러함은 물론이다. 만약 가정이나 조직,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 ‘답게’ 행동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과제를 소홀히 할 경우 그 구성체는 갈등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다움’이라는 것, 즉 이름에 담긴 과제를 누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엄밀히 따지면 그 과제는, 이름을 만들어 사용한 과거의 사람들이 그 이름에 부여한 것으로써, 현재를 사는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 그것을 각자 자신의 것으로 삼는다. 예컨대 남편다움과 부인다움의 뜻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성으로 구성해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통으로 우리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도하고 안내한다. 하지만 삶이란 사람들 각자에게 고유한 것인 만큼, 과거의 사람들이 설정해놓은 과제만으로 현재인들의 삶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신·구세대간 갈등의 한 가지 원인이 여기에 있겠거니와, 이는 같

은 이름 속에서도 그것이 지시하는 의미와 과제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감·침삭될 수밖에 없음을, 그리하여 그것은 부단한 생성과 변형의 과정 속에 있는 것임을 일러준다. 우리는 여기에서 ‘식자인識字人’의 책무를 또 한 가지 발견한다. 그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기왕의 이름들을 검토하여 바른 것을 드러내고 거짓된 것을 도려내며, 나아

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역시 끊임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름의 과제들을 올바로 제시하고 풀어나갈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갖가지 이름들도 이러한 노력 속에서만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아름답게 꽃피우는 길이기도 하다.

하서 김인후의 敬 사상

김기현(전북대 교수)

하서는 그 대답을 敬에서 찾았다. 그는 ‘대책對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요 마음으로 하여금 몸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敬입니다. 일은 이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이치는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敬은 마음을 지키고 이치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문의 처음부터 성현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敬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는 또 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敬이란 사려를 안정시키고 정신을 수렴하여 도덕성을 함양하는 도리입니다.”

사려의 안정과 정신의 수렴이란 일상의 산만하고 나태한 마음을 거두어 심기 心氣를 오롯하게 갖는 것을 뜻한다. 마음은 여기에서 세계의 중심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산만하고 나태한 마음이 사물들의 주변을 떠돌면서 그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오롯한 마음은

사물에 흔들리거나 부침함이 없이 자신을 세계의 한가운데에 고요히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사물과 세계는 이에서 비로소 그 진실된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사람들의 순수한 자기와의 만남도 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하서河西가 敬을 학문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강조해 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인식에 근거한다.

敬을 통한 도덕성의 함양은 단순히 도덕성의 내면적 자각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잠재적인 도덕성을 현실화하여 우주만물의 본질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까지 그 효과를 뻗친다. 왜냐하면 “온갖 이치 마음속에 밝게 밝게 있으니 항상 마음 살려”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고 또 실현하려는 의지를 그것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사사로운 욕망의 티끌로 인하여 사물을 왜곡되게 바라보던 마음은 이로써 그 본래의 광명을 되찾아 만사만물에 대공지정大公至正하게 임한다. 이러

한 본심의 회복은 인식론적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저 회복된 본심은 자신이 세계의 한가운데에 세워 만물을 포용하여 그들의 생성을 돕는 실천지향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될 것이다. 명징(明澄)한 인식은 실천에서 그 완성을 구하는 법이다. 그리하여 “경(敬)에 근본하면 마침

내 천하의 화평을 이루리라.” 요컨대 하서(河西)에게 있어서 마음공부는 사물의 공명정대한 인식과 처사에 더하여 세계의 완성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 김기현, 「하서 김인후의 도학과 절의정신」,
『하서 김인후의 사상과 문학』 1집 74~75쪽에서

하늘은 모든 존재의 바탕이다

이기동(성균관대 교수)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하늘을 모르기 때문이다. 형제간의 다툼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데서 기인한다. 부모에게 효도하여 부모와 하나가 되면 형제가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형제간의 다툼이 사라진다. 하늘은 모든 존재의 공통분모이므로, 하늘을 알면 모두가 하나임을 알기 때문에 다툼이 사라진다. 맹자는 공자의 학문을 통해 하늘을 알았고, 하늘의 뜻으로 살게 되었다. 그것은 모두와 하나 되는 삶이고, 하늘과 하나 되는 삶이며, 우주와 하나 되는 삶이다.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

그렇지만 완전한 행복을 얻었을 때 새로운 고통이 다가온다. 하늘을 알고 나면 모두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다가온다. 맹자도 그랬다. 맹자의 사명은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었다. 사람을 구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알게 하고, 하늘처럼 인도하는 것이었다.

양주나 목적의 사상에 오염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공자보다 더 하늘을 강조하고, 하늘의 뜻으로 살도록 깨우쳐야 했다. 맹자는 우선 인간의 삶과 하늘의 관계에 대해 역설하기 시작한다.

하늘은 부모와 같다. 부모가 자녀의 본질이고 뿌리인 것처럼, 하늘은 만물의 본질이고 뿌리이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기르며 자녀의 삶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한다. 하늘이 하는 일도 그렇다. 하늘은 백성을 낳아 지상으로 내려 보내는 존재이고, 개인의 모든 행위를 일일이 지시하는 명령자이기도 하며, 우주 또는 인류사회 전체의 변화를 주관하는 총감독자이기도 하다. 하늘이 하는 일은 잠시도 쉬지 않는다. 마치 잠시도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의 흐름과도 같다. 사람들은 이 거대한 흐름에 편승하면 삶이 순조롭지만, 그렇지 못하면 망하고 만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사람들에게 먼저 하늘을 알고, 하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하늘과 사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은 사람과 다

른 곳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명령하는 존재가 아니다. 하늘의 뜻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성성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성을 알면 하늘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쉽지 않다. 하늘은 모든 샘에 솟아나는 하나의 지하수와 같다. 하나의 지하수가 모든 샘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늘이라는 지하수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지하수를 직접 볼 수 없고, 직접 알 수 없다. 다만 지하수에서 솟아나는 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하늘도 이와 마찬가지다. 하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마음속에 흘러들어와 있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 이기동, 『유학 오천년』 1권 261~263쪽에서 가져옴

선비의 삶

김용하(시인, 전 광주고등학교장)

얼마 전에 서울에 소재한 모 대학교수 한 분이 홀연히 『선비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 한 권을 보내 주셨다. 광주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때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한 호주여행 중에 만나 같이 여행하면서 그분의 고고한 학풍에 매료되었고, 그분 역시 나에게 호감을 가져 여행 중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귀국한 뒤로도 가끔 연락을 하던 터였다. 만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땃잎에 청아한 바람 스치듯이 있는 듯 없는듯하면서도 오랜 知己처럼 정이 들었다.

내가 평소 우리나라의 영원한 브랜드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은 선비정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진정한 선비가 되기를 동경하는 것을 아시고, 아마 특별히 이 책을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하면서 책을 읽어 보았다.

옛날의 선비들이 살아가는 여러 모습에 대해 소개하는 글 중에서, 종종 때 전라관찰사를 지낸 사재 김정국 선생의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다. 특히 사재

김정국 선생은 전라관찰사를 지낸 모재 김안국 선생의 동생이다. 모재 김안국 선생은 하서가 10세일 때부터 이미 큰 인물됨을 알아보고 제자로 삼아 학문을 지도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연으로 사재 김정국 선생의 일화가 더욱 친밀하게 다가왔다.

사재의 노년에 부자친구 하나가 재산을 탐한다는 말을 듣고 편지를 보냈다. “자네는 재산이 나보다 백배도 더 넉넉한데 무슨 재물을 그리 탐하는가? 하기사 나에게도 꼭 있어야할 것이 열 가지는 있네! 책 한 시렁, 거문고 한 벌, 벗 한 사람, 싯한 켜레, 베개 하나, 바람이 잘 통하는 창문 하나, 햇볕이 잘 드는 툇마루 하나, 차 달이는 화로 하나, 늙은 몸 지탱할 지팡이 하나, 봄 경치 즐길 나귀 한 마리라네”라고….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물론 옛날과는 삶의 모습이 천양지간이지만 온갖 물질문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급격한 상승으로 편리를 다하고, 가진 것이 이루 말

할 수 없지만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정신이건 물질이건 그 소유의 최종가치는 인간의 행복 아니겠는가? 그런데 현대의 우리는 옛날에 비해 비례적으로 행복한가? 일찍이 루이스 뎀포드는 “인류 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행복이라는 궁극에 가까이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출발점에서 멀어지게 했을 뿐”이라고 갈파하였다. 가히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도 부모 형제간에 재산다툼으로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오늘날 국민들의 행복의 척도는 인권 복지의 신장이다. 인권은 헬레니즘 시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사상에서 유래하여,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광범위한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보장이나 복지 정책을 국정의 가장 기본으로 여기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부의 편중과 인권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국가권력의 문제라고만 치부하기 보다는 우리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의 변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절대빈곤보다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무한적인 물질적 소유관계에서 느끼는 소외의식이 더 고통을 준다고 한다. 어떤 특수한 상황을 모든 운명의 자기결정권 정도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여 가볍게 대처하는 것은 을축갑자와 같은 근본적인 오류라고 생각

한다.

우리사회는 지난 반세기동안 서양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근대화를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초고속 압축 성장에 수반하는 사회문화적 중대한 문제를 초래했다.

우리가 추구해왔던 전통적 가치관의 급속한 변화와 혼돈, 물질만능주의, 과중한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 정서적 지지망 약화(핵가족화와 이혼 증가), 생명존중사상 약화와 생명경시 풍조, 고령화(준비 없는 새 세대), 여성의 역할증대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다.

그 중에서도 경제적 물질적 불균형에 따른 소외의식과 우발적인 충동을 감내하지 못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풍조까지도 생겨나고 있다.

노자는 일찍이 배움과 도에 대하여 “위학일익(爲學日益) 위도일손(爲道日損)”이라고 하였다. 학문을 하는 것은 날마다 한 가지씩이라도 채우는 것이요, 도를 위해서는 날마다 한 가지씩 버리라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 즉 권력, 명예나 부같은 것은 물론이고, 하찮은 일상 생활 속에서 자존심, 우월감 이런 것들조차도 비우고, 버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사람답게 사는 길은 날마다 양보하고 버리는 것이다. 노자의 버리는데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채우고 소유하고

자 하는 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개척이요, 가치의 혁신이다.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채움의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노자는 “버리고 또 버리다 보면 끝내는 무위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 무위無爲야말로 강요하고, 명령해서 사회를 이끄는 것보다 더 위대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안분지족의 정신이야말로 인간을 구제하는 치유제이다. 선비는 사색과 관조를 통해 인간의 참 모습을 발견하여, 내적인 희열을 느낄 줄 알아야 하며, 사회에 대하여 바

른 삶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의 욕망을 줄이고, 고집과 편견을 치우고, 부와 명예를 양보하고, 나의 자존심에서 살짝 비껴서기만 해도 우리는 평화로워지고 위대해질 수 있다. 가진 사람,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고 버리는 것이야말로 용기 있는 아름다운 일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성인들도 선비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선비라면 온갖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힘 쓸 일이다. 가진 자만이 버림의 힐링을 향유할 수 있다. 진락재한거眞樂在閑居가 아닌가?

한국인, 서울대 꿈꾸지만 행복과는 관련 없다. 행복은 부-명예-학벌 아닌 ‘관계’에 있다.

미국 하버드대 재학생과 빈민가 청년들 중 누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될까? 1938년 이 질문을 던졌던 하버드대 연구팀은 이후 현재까지 85년 동안 이들의 삶을 추적한 끝에 답을 얻었다.

“우리의 방대한 연구의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했다. 인생에 있어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의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이다.”

로버트 월딩어 하버드대 의대 교수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행복을 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부도 명예도 학벌도 아니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은 사람들과의 ‘질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월딩어 교수는 “놀라운 것은 ‘의지할만한 관계’가 행복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라며 “50대일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 80대에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50대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7~80대 때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극성 등 성격적 기질도 30대 땐 성공에 영향을 미쳤지만 노년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월딩어 교수는 “외로움과 고립은 술과 담배만큼 건강에 해롭다. 원치 않는 고립에 빠진 이들은 중년에 신체 건강이 급격히 저하되고 뇌 기능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교육열이 강하고, 성취욕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 수준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었다. 자녀에게 의사가 되라는 식으로 무엇이 되라고 강요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85년 동안 축적된 연구 데이터가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동기 가족과의 관계는 80대까지 생애 전반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2023년 새해는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우

울증 진단을 받는 2030 청년들의 수가 최근 4년 동안 50% 급증했다. 특히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다. 누구보다 열심히 산다고 자부해온 한국인은 왜 행복에서 멀어지고, 미래를 비관하게 된 것일까.

“한국은 교육열이 높고 대학은 확고한 서열이 있으며, 모두가 서울대에 가고 싶어 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학벌은 행복과 관련이 없었다. 연구 결과 하버드대를 나왔다고 해서 이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다”며 “돈과 명예도 인생의 종착점인 노년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행복의 열쇠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임이 과학적으로 여러 차례 증명됐다”고도 강조했다.

월딩어 교수는 한국인에게 건네고 싶은 조언을 묻자 “새해에 무엇보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월딩어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인간관계가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50대에 인간관계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80대에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외로움과 고립은 술이나 담배만큼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80대 부부의 삶을 연

구해보니 결혼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 고통이 덜하고, 더 건강하다고 생각했다. 반대의 경우는 자신이 더 아프다고 느꼈다.”

연구 대상자인 하버드대 학생들은 대부분 부유한 가정환경이나 똑똑한 머리를 타고났다.

“교육 수준은 행복한 삶과 관련이 없는 요인이었다. 다만 교육은 수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하버드대 출신이 저소득 가정 출신보다 수명이 더 길었는데, 그들이 교육 수준 덕분에 건강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보를 바탕으로 술이나 약물을 남용하지 않고 비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란 어떤 것인가

“자신을 숨길 필요 없이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관계다. 또 상대방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녀에게 의사, 변호사 등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다. 연구 결과 아동기 가족과의 관계는 7~80대의 행복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 〈동아일보〉 뉴욕 특파원 김현수 글에서
뽀아 간추렸음

필암서원 창건과 망암 변이중

변온섭(사) 봉암서원 이사장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1510~1560) 선생을 기리는 필암서원筆巖書院이 우리나라 서원의 효시嚆矢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을 포함한 8개 서원과 함께 2019년 7월 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서원」이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필암서원 창건과 관련된 가장 오래 된 기록은 「필암서원중건상량문」에 보인다. 1624년 필암서원이 중건되었을 때 추담秋潭 김우급金友偑(1574~1643)이 지은 「필암서원중건상량문」에서는 필암서원 건립을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1533~1601)가 맨 처음 발의發意하였고, 송강松江 정철鄭澈(1536~1594)이 배알拜謁하였다고 한다.

『필암서원지筆巖書院誌』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선조宣祖 23년 경인년, 하서 선생이 세상을 뜬 지 31년이 되던 해인 1590년에 호남의 선비들이 (장성)부의 서쪽 10리 거리 기산岐山 아래에 사당을 세우고 제향을 모셨다. 하서의 문인 호암壺巖 변성온卞成溫(1530~1614)이 동문인 금강錦江 기효간奇孝謙(1530~1593)의 금강재를 오가며, 기효간과 함께 울곡의 문인 망암望菴 변이중邊以中(1546~1611)에게 쪽지 편지를 써 오도록 하여 서원을 창건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서선생문집부록河西先生全集附錄』에 실려 있는 「변성온사실기卞成溫事實記」에도 “변성온이 도보로 기효간의 금강재를 왕래하면서 기효간과 함께 쪽 편지를 써서 망암공에게 사우를 창립倡立하도록 요청하였다.(徒步往來於錦江之齋，共折書邀邊公以中，倡立祠宇.)”라는 기록이 있다.

필암서원의 창건을 발의할 당시當時는 1542년 주세붕周世鵬이 소수서원紹修書院[안향安珦(1243~1306, 1542년)]을 창건하고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문헌文憲[최충崔沖(981~1068, 1550년)]·남계藍溪[정여창鄭汝昌(1450~1504, 1552년)]·임고臨臯[정몽주鄭夢周, 1337~1392, 1553년]·예림禮林[김종직金宗直(1431~1492, 1567년)]·도동道東[김굉필金宏弼(1454~1504, 1568년)]·파산坡山[성수침成守琛(1493~1564, 1568년)]·신향莘巷[이색李穡(1328~1396, 1570년)]·금오金烏[길재吉再(1353~1469, 1570년)]·죽수竹樹[조광조趙光祖(1482~1519, 1570년)]·옥산玉山[이언적李彦迪(1491~1553, 1572년)]·송양崇陽[정몽주鄭夢周(1337~1392, 1573년)]·도봉道峯[조광조趙光祖(1482~1519, 1573년)]·문헌文獻[이색李穡(1328~1396, 1574년)]·도산陶山[이황李滉(1501~1570, 1574년)]·덕천德川[조식曹植(1501~1572, 1576년)]·남고南臯[이항李恒(1499~1574, 1577년)]·월봉月峯[기대승奇大升(1527~1572, 1578년)]·옥동玉洞[황희黃喜(1363~1452, 1580년)]·기천沂川[김안국金安國(1478~1543, 1580년)] 서원 등 고려말과 조선전기에 활동하던 현인賢人들을 기리는 서원이 영주, 해주, 함양, 영천, 밀양, 달성, 파주, 청주, 선산, 화순, 경주, 개성, 도봉, 서천, 안동, 산청, 정읍, 광산, 상주, 여주 등 경향각지에 이미 창건되었고, 이에 자극刺戟을 받은 사림사회士林社會는 서원 창건에 대한 관심이 고

조高調되어 있었다.

그러면 윤두수는 하서 선생과 어떤 인연이 있길래 하서 선생을 기리는 서원 창건을 발의하였을까? 윤두수는 1587년 6월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1588년 6월까지 전라도 각 지역을 순시하였는데, 송순宋純(1493~1582)이 1533년에 담양潭陽의 제월봉霽月峰 아래에 세운 면앙정倣仰亭을 자주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면앙정은 기대승, 김인후, 임억령, 박순, 이황, 윤두수, 고경명 등 많은 인사들이 출입하면서 호남 제일의 가단歌壇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윤두수는 하서의 문인인 송강 정철과 막역莫逆한 사이였고, 평소 하서의 덕을 흠모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윤두수와 하서의 인연은 비록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지만 면앙정 출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싶다.

필암서원이 창건된 1590년 당시 전북 고창高敞 출신의 변성온은 61세였다. 변성온은 1560년(명종 15)에 하서 김인후 선생이 세상을 뜨자 축단祝壇을 쌓았다고 알려져 있다. 기효간도 당시 61세였는데, 그는 평생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기효간은 후진양성에 주력하면서 호남의 은덕군子隱德君子로 불리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오천 김경수, 하곡 정운룡, 망암 변이중 선생 등과 함께

오산사강단(鰲山四講壇)이라 부르기도 했다. 망암 변이중(1546~1611) 선생은 당시 45세였다.

윤두수가 서원 창건을 발의한 시기는 그가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인 1587년 6월에서 1588년 6월까지의 어느 시점으로 추정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관찰사로 부임하자마자 필암서원 창건을 제1순위 업무로 상정했을 리는 없다. 당시 전라감영은 전주(全州)에 있었고, 그가 1년간에 걸쳐 전라도 지역을 순시하였다고 하니 아마 늦어도 1588년 상반기 무렵에 장성 지역을 들렀을 가능성이 높다. 윤두수가 장성(長城) 지역을 순시할 때 하서 선생이 태어나고 벼슬을 마친 뒤 여생을 보낸 이곳 장성에 선생을 기리는 서원이 없는 것을 보고 이를 중앙의 정철에게 알리고 호남 사림들에게 서원 창건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원 창건이란 것이 하루 아침에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서원 창건에 대한 대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내 유림들의 뜻을 모으며, 서원의 터를 잡고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재원(財源)을 마련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만약 1588년 무렵 윤두수의 서원 창건 발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시 조정은 동서 봉당 정치로 말미암아 정국이 요동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듬해인 1589년(선조 22)은 기축옥사(己丑獄事)가 일어난 해이다.

기축옥사는 1589년 10월 ‘전주의 정여립(鄭汝立)(1546~1589)이 모반을 꾸민다’는 고변으로 시작되어 약 3년간 정여립과 연루된 1천여 명의 동인(東人)이 희생된 사건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이다. 기축옥사 초기에는 동인이 국청을 주관하였는데 정여립이 자살하자 정여립 모반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하였다. 그런데 그해 11월 선조가 정철을 우의정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기축옥사를 다시 주관하도록 한다. 이후 수많은 동인들이 옥사로 희생되는 일이 벌어진다. 정철은 기축옥사가 종료된 후 1591년 광해군 세자 책봉을 건의하다가 실각, 평안도 강계(江界)로 유배를 떠난다. 윤두수 역시 세자 책봉사건 때 호조판서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삭탈관직 당한 후 함경도 회령(會寧)으로 유배를 갔다.

그러면, 필암서원 창건 해인 1590년을 전후로 하여 망암 변이중 선생의 연보를 중심으로 그의 행적을 살펴보자.

망암 변이중은 28세에 문과급제(文科及第)하여 호조·예조좌랑과 사헌부 감찰 등을 두루 역임하다가 39세이던 1584년 1월 율곡(栗谷) 선생이 세상을 떠나고, 10월

에 조봉대부朝奉大夫로 가자加資(승진) 되면서, 황해도 관찰사를 보좌하는 도사都事에 제수된다. 그런데 망암공은 황해도 도사로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듬해인 1585년 40세가 되던 봄에 파면되어 고향 장성으로 돌아온다. 파직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 율곡선생이 돌아가시고 집이 가난하여 처자들이 의탁할 곳이 없었다. 망암공은 황해도의 아사亞使(도도사道都事의 별칭)로서 고아들을 쓰다듬어 위로하고, 그 집을 후하게 돌보아 주었다. 당시 세력을 잡은 동인들은 율곡을 미워하였는데 망암공의 행위는 그들의 눈에 거슬렸기 때문에 끝내 파직되었다.

망암공은 1586년(41세) 봄에 강원도 은계銀溪의 찰방察訪으로 제수되었으나 병 때문에 사직한다는 상소문을 올리고 부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망암공은 1585년 봄 이후 1588년(43세) 가을 평안도 도사平安道 都事로 제수되기까지 약 3년 반 정도 장성에 머물러 있었다. 망암공이 벼슬을 하지 않고 장성에 있을 무렵 윤두수도 1587년 6월부터 1588년 6월까지 전라도 관찰사로 있었다. 그렇다면 윤두수가 전라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필암서원 창건을 발의한 시기를 최대한 빨리 잡아서 1587년 6월이라고 하든, 최대한 늦게 잡아서 1588년 6월이라고 하든 간에 망암공이 고향인 장성에 머물고 있던 시기와 일치한

다. 당시 하서의 문인이던 변성온과 기효간이 열여섯 살 아래인 망암공에게 서원 창건을 주도해달라고 요청한 시기와의 일치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안타깝지만, 필암서원지와 망암공 연보의 기록을 미루어 짐작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만약 1588년 상반기에 서원 창건 논의가 장성 지역에서 공론화되었다면, 망암공의 탁월한 추진력을 미루어 볼 때 서원 창건에 큰 성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성향교지長城鄉校誌』와 『망암선생문집望菴先生文集』 잡저편雜著篇의 향헌서鄉憲序에 의하면, 그 당시 망암공은 1586년 고향 친구 정경우鄭慶遇와 함께 온 고을 어른들과 상의하여 『여씨향약』을 본떠서 향헌鄉憲 10여 조를 만들어 시행한다. 연부역강年富力強한 망암공이 고향의 향풍鄉風을 진작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1588년에 서원이 창건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1588년은 서원 창건에 대한 윤두수의 발의와 장성 지역 유림 사회의 논의가 있었지만, 조정의 분위기나 동서 봉당의 역학 관계로 서원 창건이 본격화될 수 없었다. 두 번째로, 서원 창건의 실무 역할을 담당했던 망암공

의 끈이은 복직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서원 창건이 뒤로 미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서원 창건 발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588년(43세) 가을에 망암공은 평안도 도사로 제수되고, 갈려서 형조정랑刑曹正郎에 임명된다. 그리고 44세인 1589년 10월에 풍기군수豊基郡守로 제수된다. 그런데 풍기군수로 제수된 지 불과 8개월만인 1590년(45세) 5월에 벼슬 자리에서 갈리어 장성으로 되돌아온다. 망암공은 풍기군수로 제수 받았지만, 원칙을 고수하는 강직한 성품 때문에 세력 있고 지위가 높은 자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황을 종합해볼 때 필암서원의 창건 발의가 윤두수에 의해 1588년 무렵 이루어졌다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遲遲不進하다가 기축옥사 이후 서인의 영수로 송강 정철이 조정을 장악하고, 서원 창건을 주도하던 망암공이 장성으로 귀향한 1590년 5월 이후 급물살을 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기 기산岐山 아래의 경사진 곳에 세워진 필암서원은 창건 당시 향사 기능을 주로 하는 사우祠宇로 규모 역시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개 사우나 서원을 창건할 때 기록을

남기는데 필암서원의 창건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1597년 정유재란으로 사우가 완전히 소실되었을 때 상량문을 비롯한 관련 기록물들도 함께 불에 타버렸던 것은 아닌가 싶다. 필암서원은 1590년 최초로 창건된 후 1624년 중건되었고, 물난리 등의 이유로 1672년 현재의 위치로 이 건되었다. 그리고 1662년(현종 3) 호남 유림들의 청액소請額疏에 의해 ‘필암筆巖’이라고 사액賜額되었다.

서원 창건후 다음해인 1591년 겨울, 망암공은 평안도 어천魚川 찰방에 제수된다. 당시 송강 정철 상공相公이 평안도 강계江界에 귀양 와 있어서 화가 언제 닥칠지 몰랐다. 그런데도 망암은 송강을 극진하게 위문하고 필요한 물건을 보냈다. 그러자 송강은 망암공에게 편지를 부쳐 “생강과 계피는 짓이겨 없애도 오히려 매운 맛이 남는다.”라고 망암공을 극찬하였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후인 1592년 임진년 4월, 망암공 47세에 왜란倭亂이 일어난다. 망암은 선조대왕宣祖大王을 의주까지 호종하고 군사를 모으고 의병을 일으키는 전라도소모사全羅道召募使와 군량미를 조달하는 조도어사調度御使를 두 번, 명나라 원군의 군량미를 운송하는 독운사督運使를 세 번씩 역임하면서 임란평정의 전기를 마련한 행주대첩幸州大捷 승리의 주

역인 “변이중 화차” 300량을 창제하여 호성원종 扈聖原從 1등과 선무원종 宣武原從 2등 공신이 되었다. 훗날 대원군 大院君의 서원철폐령을 면免한 47개 서원중의 하나인 행주서원 杏洲書院에 배향되고, 봉암서원 鳳巖書院의 주벽 主壁으로 향사하고 있다.

필암서원은 임진왜란 때는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1597년 정유재란 때 불에 타 버리고 만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원래 창건지에 있던 필암서원의 소실은 하서의 문인들이 주도한 오산남문창의 鰲山南門倡義와 망암공의 화차 발명에 대한 왜적의 보복일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오산남문창의를 주도한 72인 중의 상당수는 하서 김인후 선생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세 번에 걸쳐 일어난 남문창의는 1590년에 창건된 필암서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망암공의 필암서원 창건 기여는 서로 사승 師承 관계가 다르더라도 사문 斯文을 진작하는 일에 함께 뜻을 모으고, 실천에 옮긴 장성 사림 士林의 본모습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필암서원은 장성지역은 물론이고 호남의 사상적·문화적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조선 팔도 사림들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하서 김인후 선생의 학덕 學德에서 비롯된다.

참고문헌

- 『망암집(望菴集)』
- 『필암서원지(筆巖書院誌)』
- 『장성향교지(長城鄉校誌)』
- 『오산창의사지(鰲山倡義祠誌)』
- 『하서선생전집부록(河西先生全集附錄)』 권2 「서술(敍述) 변성온사실기(卞成溫事實記)」
- 李相海 「조선후기 서원의 역사와 서원건축」 『서원(書院)』 열화당(悅話堂) 1998.
- 고영진, 「장성지역의 유학 전통과 특징」, 『역사학연구』 제55집, 2014.
- 김만호, 「조선후기 장성(長城) 지역의 남문창의(南門倡義) 기억과 그 의미」, 『역사학연구(歷史學研究)』 67집, 2017.
- 김봉곤, 「필암서원(筆巖書院)과 울산김씨(蔚山金氏)」, 『한국계보연구(韓國系譜研究)』 5, 2014.
- 조상순, 「필암서원연구(筆巖書院研究)-필암서원지 해석을 중심으로」, 『문화재』 31, 1998.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호남 정치인들

송진우, 백관수와 ‘호남 삼총사’ 김성수, 기득권 버리고 토지개혁 동참
순창 출신 대법원장 김병로, 영암 출신 법무장관 김준연도 건국 기여
호남인이 함께 세운 이 나라 무너뜨리려는 세력 지지해선 안 돼

박은식(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대한민국이 세계사에서 예외적으로 성공한 나라라는 점은 세계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식민지를 겪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실패하고, 포퓰리즘에 무너지거나 쿠데타가 빈발하는 등 진정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일본이 물러난 뒤 전근대적 왕조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근대국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승만을 비롯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굳게 정하고, 수많은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과 맞서 싸웠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엔 호남의 인재들도 대거 참여했다. 호남의 너른 들판에서 일군 부를 기반으로 건국에 기여한 인재들의 중심에는 인촌 김성수(1891~1955)가 있었다.

조선이 몰락하던 1891년 전북 고창의 부농 집안에서 태어난 김성수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일본 유학길에 올라 발전된 문물을 배우고 돌아왔다. 민족의 실력 향상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 교육 사업에 뛰어든 그는 중앙학교(현 중앙고),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를 인수해 많은 인재를 길러냈다. 국내 최초 주식회사인 경성방직을 세워 민족의 의생활을 향상시키는 물론 민족자본을 축적하고 기술자들을 길러냈다. 동아일보를 창간해 조선일보와 함께 민족 정론지 역할을 했다. 그가 직접 독립운동에 거금을 후원했음을 상기할 필요 없이 그의 삶 자체가 독립운동이었다. 민족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렀기 때문이다.

해방 후 김성수는 좌익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조직과 자금을 대어 우익 계열 인

사들을 규합해 한국민주당을 창당했다. 한민당을 통해 미군정과 협력해 혼란을 수습하면서 북한에 공산정권을 세운 김일성과는 단호히 선을 긋고 이승만과 함께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김성수는 기꺼이 기득권을 내려놓았다. 최대 지주이던 그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토지개혁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이때의 토지개혁은 근대 국민국가 출발의 바탕이 되었고, 6·25 전쟁 때 국민에게 ‘지켜야 할 나의 것’을 마련해줘 공산세력에 용감히 맞서 싸울 원동력이 되었다.

김성수 곁에는 송진우(1890~1945)와 백관수(1889~1951)가 늘 함께해 ‘호남 삼총사’라 불렸다. 전남 담양 출신 송진우는 메이지대를 졸업하고 중앙학교의 교장이 되어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다. 식민지 시대 동아일보 사장을 지내고 해방 후 한민당 대표를 역임했다. 전북 고창 출신 백관수는 메이지대 법대를 졸업하고 중앙학교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근무하다 제헌국회 의원이 되어 헌법을 기초했다.

독립운동가를 무료 변론한 전북 순창 출신 김병로(1887~1964)는 대한민국 건국 후 초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도쿄대 유학 후 베를린대로 건너가 수학한 뒤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을 역임한 전남 영

암 출신 김준연(1895~1971)은 대한민국 헌법 기초위원 및 제헌국회 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당대 사람들의 지지로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는 안타깝게도 명의를 도용된 ‘징병권고문’이 문제되어 문재인 정권 때 건국공로훈장이 박탈됐고, 고려대 인근의 길 이름 ‘인촌로’도 사라졌다. 건국에 기여한 인사들을 친일파라 낙인찍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선동에 호남인을 포함해 상당수 국민이 호응하는 것은 정신적 식민지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 퇴행적 표출이다. 호남인이 함께 주도해 건국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북한에 비자금을 보내고, 비리 의혹 정치인을 위해 방탄 국회를 여는 정당에 호남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현실은 또 얼마나 안타까운가.

호남인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사를 알고 자부심을 가진다면 결코 반대한민국 세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저급한 반일 선동에 맞서 대한민국이 미래 지향적인 선택을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해방 후 8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남아 있는 피해 의식을 극복하는 데 내 고향 호남 사람들이 먼저 행동에 나서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호남의 대표 정치인 김성수에 대한 복권 운동이 그 시작이길 바란다.

필암서원 2023년 춘향제 봉행

— 초헌관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도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과 제자이자 사위인 양자징을 기리는 춘향제가 3월 10일 필암서원에서 열렸다.

이번 춘향제에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협 울산김씨 대종회장, 김상백 문정공대종중 도유사, 김진웅 김인수 김성수 전도유사, 김재수 산양회 이사장, 선상규 보성유림, 이성규 경남 김해유림, 서정택 경기유림원로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배용 위원장이 초헌관으로서 하서 선생에게 첫 술잔을 올렸다. 아헌관으로 선상규 보성원로유림, 종헌관으로 박대하 전교협 전남회장이 차례로 술을 올렸다.

이배용 위원장은 2020년 안동 도산서원에서 600여 년 서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초헌관을 맡은 데 이어 이번에 필암서원 향사에서 초헌관을 맡은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제향을 마친 뒤 청절당에서 ‘인성교육과 서원’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교육에 대한 폭넓은 반성과 도덕재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바른 심성을 가진 인재를 키우는 인격도야에 큰 비중을 두었던 조선시대 서원의 가치는 미래를 향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2년 9월 19일에 필암서원 추향

제가 봉행된 바가 있는데, 본고장 국회의원이신 이개호 의원이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초헌관을 맡아 하서 김인후 선생께 술잔을 올리고, 청절당에서 간단히 인사말을 하였다. 코로나로 제한된 인원만 초청하여 소박하게 제향을 봉행했다.

필암서원 산양회 2023년도 이사회 가지다

23년 2월 7일 16시에 예원식당에서 필암서원 이사회가 열렸다. 김재수, 박래호, 이충원, 김양수, 김용하 이사, 김진산 별유사, 김승규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3월 정기총회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기총회는 3월 24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열기로 하고 전북대 김기현 교수를 초청연사로 정하였다. 〈하서 도학과 문학〉 38호 발간과 집성관 예약, 버스대절 등을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더운 7월과 추운 12월에 학술강연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봄과 가을에 열기로 했으며, 세계 문화유산 등재 관계로 필암서원에서 강연회를 개최했으나, 원래대로 3월 정기총회는 필암서원에서, 가을 강연회는 연로하신 유림원로들이 참석하기 쉬운 광주향교에서 열기로 하였다.

돌아가신 회원이 많으시고 건강상 활동하기 어려우신 회원이 많으시므로 신입회원 추대와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신계 김장수 본회 이사 소천

본 산양회 창립 초대총무를 맡았고, 23년 동안 산양회 활동에 온갖 열성을 쏟았고, 10여 년 이상 이사로 헌신해온 신계 김장수金長洙 이사가 6개월간 병원에 입원 중 3월 1일 소천하여 장흥 용산면 척산 선영에 안장되었다.

김장수 이사는 본회 창립 회장을 맡았던 안진오 교수와 함께 <동양문헌학회>를 창립하여 본회 이사장을 역임한 정환담 학장과 함께 광주향교에서 강독한 바 있고, 이 고장 문헌과 문집과 논설들을 모아 수십 권의 책을 발간하는 일을 주도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본회 신입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나날이 돌아가신 회원님들이 많으시고 연로하여 활동이 어려우신 회원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스스로 신입회원으로 입회하신 귀한 분들이 계서 기뻐하고 환영하며 아래에 소개합니다.

• 변홍섭(변성온 선생 후손)

서울 성북구 월곡동 푸르시오 108동 601호. 핸드폰 010-3768-5171

• 조도현 시인(1950년 2월 7일생)

광주 광산구 광산로 46. 핸드폰 010-2606-6560

• 최병식 핸드폰 010-9899-3802

• 박경익, 본관 밀양. 아호 인성재仁誠齋

전남 순천시 원가곡길 75 양우내안에 103동 503호. 핸드폰 010-8667-7087

• 김상암 경기 수원시 권석구 수송로 35번길 60 일월청구 102-303. 핸드폰 010-3213-5310

본회 문 영수文永洙 회원

성균관 유도회 전남도본부회장 취임

장성향교 전교를 역임한 바 있는 문영수 회원은 왕성한 활동력을 인정받아 성균관 유도회 전남도본부회장에 추대되어, 여러 문화사업을 후원하면서 유도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회 김 영풍 회원 장성향교 전교 취임

장성 문화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영풍 회원이 2022년 장성향교 전교로 추대되어 취임하였다.

문정공 신임도유사에 김상백,

상임고문에 김양수 전 군수

지난 2월 6일에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문정공대종중 정기총회가 열렸다. 김성수도유사의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처리한 후 김인수 전 도유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정하여 새 도유사 선임을 논의한 결과 신

임도유사에 김상백 종친, 상임고문에 김양수 전 군수, 부도유사에 김진산 별유사, 김재완 전 군의원을 선임하였다.

그리고 2월 28일에 많은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성관에서 문정공 도유사 이취임식을 가졌다. 총무유사에는 김영수, 감사에는 김병순, 김형중이 맡았다.

3·1운동의 발상지, 중앙고등학교

계동 현대사옥에서 중앙고등학교에 이르는 남북축의 일직선 진입로는 해방직후 건국운동의 주요 동선으로서 뿐만 아니라 3·1운동의 발상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공간이었다.

현대사옥을 지나 중앙고등학교를 향해 주욱 걷다보면 오른편 대동정보산업고로 꺾어지는 골목 어귀에 3·1운동 당시 인촌 김성수가 거처하였던 계동130번지 김사용의 집이 있었다. 당시 중앙고보의 주인이었던 김성수가 서울에 올라와 살던 집으로, 1919년 2월 11일 최남선의 편지를 받고 급거 상경한 이승훈이 현상윤의 중개로 중앙고보 교장 송진우와 역사적인 만남을 가진 장소이다.

계동 김성수의 거처에서 있는 회동에서 최남선을 대신해 나온 송진우가 천도교 측에서 기독교 측과 힘을 합쳐 독립운동 거사를 할 의향이 있다는 제안을 하자, 이승훈은 그 자리에서 쾌히 승낙을 하고 곧바로 기독교계의 세 규합에 착수하였다.

그러니까 계동 김성수의 거처는 간접적인 형태로나마 천도교계와 기독교계가 첫 접촉을 하고 독립운동 일원화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장소였던 셈이다.

- 〈프레시안〉, 「3·1운동의 발상지, 중앙고등학교」,
최영대 인촌사랑방 대표

삼양그룹 '양영-수당재단'

대학생 등 147명에 10억 장학금

삼양그룹 장학재단인 양영-수당재단이 올해 고교생과 대학-대학원생 147명을 선발해 총 1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월 27일 밝혔다. 두 재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양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2023년도 장학증서수여식'을 열었다.

양영재단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62명, 수당재단은 대학생 15명을 각각 선발해 최대 4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과 월 50만 원의 학습지원비를 지급한다. 고등학생 70명은 각각 연간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는다. 장학생은 각 학교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양영재단은 1939년 삼양그룹 창업자인 고수당 김연수 회장이 설립한 국내 최초의 민간 장학재단이다. 수당재단은 김 회장과 그 자제들이 1968년 설립했다. 현재까지 학생 2만3000여 명에게 장학금 약 240억 원을 지원했다.

필암서원 산양회 활동사항

- 2014년 9월 13일 필암서원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서정기 성균관장 “유교와 현대 민주주의” 강연
- 2014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성균관대 이기동 교수의 “하서의 철학과 복성부復性賦” 강연
- 2015년 4월 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뿌리회 이용규 전 회장 “강화학과 정신과 독립운동” 강연
- 2015년 10월 2일 추향제 올리고 박광순 학술원 회원 “유교의 종교성에 관한 일고찰” 강연
- 2015년 12월 17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오종일 전주대 교수 “하서 선생 시의 천명사상과 그 지향성” 강연
- 2016년 3월 26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송하경 성균관대 명예교수 “하서 선생 <천명도 제사>의 우리말 해석에 대한 소견” 강연
- 2016년 7월 8일 집성관에서 김충호 훈몽재 산장 “도학의 원류와 하서 선생 도학시”로 강연
- 2016년 9월 12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고재유(전 광주광역시장) 인사말
- 2016년 12월 23일 광주향교에서 정기총회 후 강위원 여민동락공동체 대표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강연
- 2017년 3월 11일 춘향제 올리고 청절당에서 “하서 김인후 선생과 지역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초헌관 정병석 전남대 총장 강연
- 2017년 7월 3일 필암서원 집성관에서 원광대 김봉곤 교수 “하서 김인후 선생의 절의와 도학” 강연
- 2017년 10월 15일 추향제 올리고 정운염 초헌관 “하서 선생은 해동의 주돈이요 호남의 공자” 강연
- 2017년 12월 4일 광주향교에서 17회 정기총회 후 조선대 이종범 교수 “하서 김인후의 출처의리와 도학세계”란 주제로 강연
- 2018년 4월 5일 춘향제 봉행하고, 청절당에서 초헌관 정환담 학장이 “하서 사상의 사적맥락에 관한 고찰”이란 논제로 강연
- 2018년 9월 22일 추향제 봉행하고, 청절당에서 초헌관 김평호 나주향교 전교가 “유교에 대한 이해”란 논제로 강연
- 2019년 3월 21일 춘향제 올리고, 오세인 초헌관(전 광주고검장)이 “유학전통의 계승과 유림의 역할” 강연.
- 2019년 7월 27일 집성관에서 김장수(동양문화학회 회장) “서명사천도 연구를 위한 발제”, 탁현숙(조선대 교수) “김인후와 기대승의 황룡강변 소재 시 고찰” 강연
- 2019년 8월 17일 우등사에서 세계유산 등재 고유제(박병호 원장), 종가 부조묘에서 종손과 종친 고유제
- 2019년 9월 17일 추향제 올리고, 초헌관 김동원(전북대학교 총장) “현대사회의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하여” 강연
- 2019년 10월 23일 세계유산등재 기념비 제막식 축제
- 2019년 12월 9일 집성관에서 전북대 김유곤 교수 “중용과 대학 해석에 나타난 윤후의 사천지학의 구조와 성격” 강연
김재수 “서명사천도에 대한 관견” 강연, 하서 도학과 문학 33호 발간
- 2020년 10월 15일 세계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축전 행사 축소 거행
- 2020년 10월 23일 추향제 봉행, 초헌관에 신형철 전 광주향교 전교
- 2020년 12월 하서 도학과 문학 34호 발간
- 2021년 3월 30일 춘향제 봉행, 초헌관 허정(광주에덴병원장)
- 2021년 9월 26일 추향제 봉행, 초헌관 송준빈
- 2021년 11월 30일 집성관에서 학술강연하다, 김정호(전남대 교수), “하서 김인후를 중심으로 한 혼맥의 관계성과 호남학술의 부상” 김장수(동양문화학회회장), “하서 선생과 덕계 오건 연구”를 발표하였다. 하서 도학과 문학 35호 발간
- 2022년 3월 15일 춘향제 봉행, 초헌관에 민영돈 조선대 총장
- 2022년 9월 19일 추향제 봉행, 초헌관 이개호 국회의원
- 2022년 12월 김봉곤(원광대) 교수 “규암 송인수의 호남순례와 하서 김인후” 산양회 학술 강연, 하서 도학과 문학 37호 발간
- 2023년 3월 10일 춘향제 봉행, 초헌관 이배용 위원장 “인성교육과 서원” 강연

중용 31장 총명예지聰明睿知 장

오직 공자와 같은 천하의 지극한 성인만이 총명과 예지를 갖추어서 세상에 군림할 수 있고, 너그러움과 온유함을 갖추어 포용할 수 있고, 강함과 굳셈을 갖추어 대사大事를 주관할 수 있고, 엄숙함과 공정함을 갖추어 공경할 수 있고, 조리 있고 세밀한 관찰력을 갖추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다.

넓고 광대함, 그윽하고 심원함이 제때에 맞게 나온다. 넓고 광대함은 하늘과 같고, 그윽하고 심원함은 연못과 같다. 모습을 드러내면 백성들이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고, 말하면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이 없고, 행동하면 백성들이 기뻐하지 아니함이 없다…….

사람 힘이 통하고, 하늘이 덮고, 해와 달이 비추고, 서리 이슬이 맺히는 곳에 혈기 있는 사람치고 존경하고 친애하지 않는 이가 없다. 그래서 “하늘을 짝 한다”고 한다.

唯天下至聖，爲能聰明睿知，足以有臨也；寬裕溫柔，足以有容也；發強剛毅，足以有執也；齊莊中正，足以有敬也；文理密察，足以有別也；

溥博淵泉，而時出之。溥博如天，淵泉如淵。見而民莫不敬，言而民莫不信，行以民莫不說。……

人力所通，天地所覆，地之所載，日月所照，霜露所隊，凡有血氣者，莫不尊親。故曰配天。

— 김영민 지음 『중국정치사상사』 사회평론아카데미 759쪽에서

천작

하늘이 내린 벼슬



김기현 지음

사랑은 사람의 편안한 집이요,
의로움은 사람의 바른 길인데,
편안한 집을 비워 둔 채 거기에서 살지 않고,
바른 길을 버려 둔 채 걷지 않으니,
딱하구나!

—『맹자』

『천작天爵, 선비의 삶에서 사람의 길을 찾다』는 오랫동안 동양 철학을 연구하며 선비의 삶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전북대학교 김기현 교수(『선비』(민음사, 2009)로 성균관 저술상 수상)가 우리의 역사적 자아의 원형인 선비의 사상을 통해 오늘날 사람들의 삶을 진단하면서 문제점들을 찾고,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오래된 지혜를, 철저히 오늘날의 정신으로 정련하고 재가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참자아를 찾아 실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김동춘(성공회대학 사회과학부 교수)